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5. 7. 21.(월) 12:00 배포 2025. 7. 21.(월)

산업부 장관, 대미(對美) 관세 협상 앞두고, 협상 전략 및 국내 대책 긴급 점검

- 김정관 장관, 민관 합동 "對美 통상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7.21(월) 1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對美 통상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회의는 8월 1일 미측 관세조치 부과 예고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앞두고 정부의 협상전략을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소집되었다.

김 장관은 "현재 대미 관세협상 상황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현재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 하에 협상 전략을 가다듬고 있으며, 관세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관세협상 관련 국내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점도 깊이 유념하고 있으며,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전반적 국익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업계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기존 지원대책을 포함,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적 국내 대책 마련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업계도 대미 아웃리치 활동 전개와 협상 레버리지 발굴 차원에서 정부와 지속 소통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국익 극대화와 상호 호혜의 원칙 아래 대미 관세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기업의 단기적 경영불확실성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서기관	박미령 (044-203-56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對美 **통상 긴급점검회의 개요**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5.7.21(월) 12:00~13:30, 대한상의 EC룸

○ **참석 : 정부, 경제단체, 업계, 학계**

- **(정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박종원 통상차관보, 박정성 무투실장 등
- **(경제단체)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부회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 **(업계) 강남훈** 자동차협회 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강성욱** 철강협회 본부장
- **(연구기관)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진행 순서 (※ 언론공개 범위 : 장관 모두발언)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2:00-12:05 (5′)	• 모두발언	장관
12:05-12:13 (8′)	• 발표 : 對美 협상 대응방안	산업부
12:13-13:28 (75′)	• 자유 토의	참석자 전원
13:28-13:30 (2′)	• 맺음말씀	장관